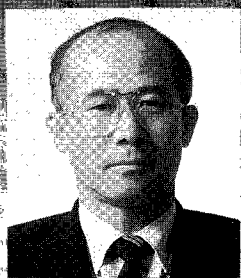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질병 없는 축산업은 꿈일까?



신 정 재
(주)과학사료 대표

금년 3월 1일 현재 가축통계조사 결과 한 육우, 젖소, 돼지 사육마리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반면 닭마리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는 장기간 계속된 소값 하락으로 암소 도축 증가에 따른 송아지 생산 감소와 쇠고기 수입개방 압박, 향후 소값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사육규모 감축 및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사육 포기로 마리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젖소는 지난해 분유체화로 인한 낙농가의 납유 어려움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젖소 도축 증가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되어 사육두수가 줄어든 것이며, 돼지는 모돈 감축으로 새끼돼지 생산감소와 상수원 지역의 축산환경 규제 강화로 소규모 농가의 전·폐업이 늘어나 사육두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 축종별 마리수 조사결과 (단위 : 천두(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증 감		
	12	12	3	6	9	12	3	전분기	전년 동기	
소	한·육우	2,844	2,735	2,762	2,750	2,633	2,383	2,198	△7.8	△20.4
	젖소	552	544	566	562	552	539	533	△1.1	△6.2
돼지	총마리수	6,516	7,096	7,441	7,458	7,788	7,544	7,376	△2.2	△0.9
닭	총마리수	82,830	88,251	85,912	93,351	83,910	85,847	89,806	3,959 (4.6)	3,894 (4.5)
	산란계	46,335	48,190	47,114	45,888	44,226	45,923	47,503	1,580 (3.4)	389 (0.8)
	육 계	30,381	34,427	32,781	41,578	33,034	34,671	36,736	2,065 (6.0)	3,955 (12.1)
	사육 가우수	187	162	141	150	154	168	161	△7 (4.2)	20 (14.2)

닭은 사료값 하락, 계란·계육가격의 출하가격 인상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사육규모 확대를 위한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 사육수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참조, 축산신문 인용)

언뜻 보면 축산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양계분야만 호황을 누리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금년들어 부로일러 출하가격이 kg당 1,700원이 넘었다.(요즈음은 1,500원대로 하였지만) 계란 고시가격이 100원(특란)이 넘는 것이 오래 되었다. 이러한 가격이면 병아리 값이 500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이익이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산재화 되어 있는 많은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다. 부로일러인 경우 흔히 콕시듐증이나 만성호흡기병(CRD)만 예방치료하면 질병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백신접종만 하면 문제없는 뉴캐슬병이나 새로운 괴질인 인플루엔자, J바이러스, 저혈당증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크지 모른다.

산란계인 경우 역시 가금티푸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육성을 출하율, 산란율의 저하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면 부로일러 육성비가 kg당 1,200~1,300원이 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료값이 대폭 하락하고 출하 가격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만큼 실속은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옆친데 덮친격으로 금년들어 매월 2,000톤 이상의 계육이 수입되는가 하면 태국산 냉장계란이 64만개나 수입이 되어 국내 가격에 따라 수입량이 변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질병만 예방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보장하는 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높은 출하가격은 수입을 자초하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환율의 하향조정과

중국산 수입제한 해제에 따른 수입을 예상한다면 더욱 생산비 절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산비 절감의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 사료값이나 병아리 값이 아니라 주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다는 점이다. 요즈음 양돈업계의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태동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돈육 생산의 15%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에서 콜레라 청정지역 선포를 하면서 콜레라가 발생하는 한국에서는 돈육을 후년부터 수입할 수 없다는 통고를 해옴에 따라 뒤늦게 콜레라 박멸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양돈업계의 다급한 문제이다.

돼지 콜레라는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근절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된다면 일차적으로 양돈업자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만 워낙 사안이 크므로 양돈업자는 물론 농림부 및 관련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향후 1년 7개월 동안에 박멸하자는 캠페인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양계업계도 생산비 절감이 아니라 생존차원에서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 해야 할 백신접종은 꼭 해야 한다. 전번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괜찮았다는 요행을 바라는 사고방식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백신접종이나 예방약을 투여하는 것은 질병예방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손해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 아니겠는가?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 노력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양계업자 자신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